

“증산 + IPO” 병행하는 사우디의 속내: MONEY!

▶ 연휴 기간 “아람코IPO 연기없이 진행 + 러시아 석유기업과 MOU + 내년 인도 정유설비투자” 연이은 발표
살만(Salman) 체제 이래 사업다각화와 국제화 계속 진행 중. 돈이 급한 사우디의 최근 증산은 당연한 행동

사우디 석유계의 절대자 칼리드 알 팔리, “IPO 연기 없다”

Saudi Aramco IPO schedule 'is not slipping,' says Saudi energy minis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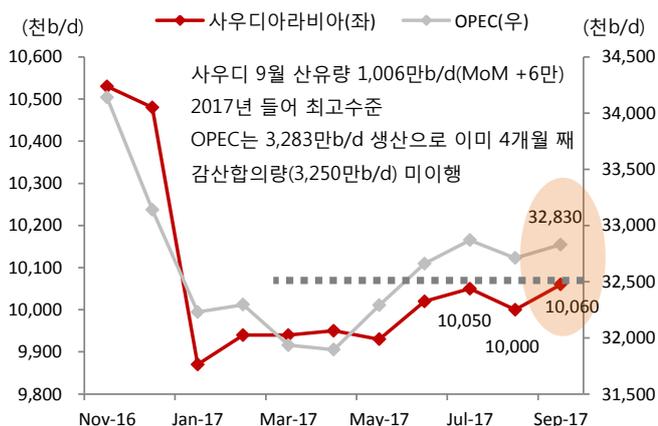
- Speaking at an energy industry panel moderated by CNBC in Moscow, Khalid Al-Falih said that the IPO (initial public offering) was set to happen in the second half of 2018.
- Al-Falih said more details would be released in due course but would not be drawn on a more precise date. He said the IPO was significant for Saudi Arabia's economic transformation.

Holly Ellyatt | Geoff Cutmore
Published 5:13 AM ET Thu, 5 Oct 2017 | Updated 6:02 AM ET Thu, 5 Oct 2017



자료 : CNBC, SK증권

지속적으로 산유량을 늘리는 사우디, 이미 깨진 OPEC 쿼터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연휴 동안 또 뉴스를 꽤나 많이 내놓은 측이 있습니다. 바로 핵심 산유국 사우디 아라비아와 그들의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(Saudi Aramco)입니다
- 무엇보다 얼마 전부터 심심치 않게 루머로 돌던 사우디아람코 IPO 연기설에 대해서, 현재 사우디 석유계의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칼리드 알 팔리(Khalid Al-Falih)가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. IPO는 기존 예정대로 2018년 하반기로 진행됩니다
- “(중략) as the chairman of Saudi Aramco I can tell you that (중략) It will take place in 2018 and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at schedule is slipping,“ 그가 한 말입니다. 인터뷰 전문을 보면 격하단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어투였습니다

-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, 일단 사우디는 10/5 러시아 대표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(Gazprom), 석유화학 기업 시부르(Sibur) 및 국영펀드 RIDF와 MOU를 체결했습니다
- 그리고 10/9에는 아람코의 CEO가 인도 정유회사 몇 곳과 심각한(serious) 투자를 논하고 있다며, 빠르면 내년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네요
- 사우디는 살만(Salman) 체제 이래 지속해서 국영사업 다각화 및 해외진출을 추진 중입니다. 결국 현금확보가 필요한데 아람코 IPO는 그 중 핵심 정책이구요. 결국 이런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 최근 발표들이라 판단됩니다
- 이렇게 본인도 급한 사우디가 남 좋은 감산만 할 수 있을까요? 이미 9월 산유량은 연중 최대치고, OPEC 쿼터는 6월부터 깨진 지 오래입니다. 석유 국제정세를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면 곤란합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